

제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 갑니다



## 종합 철강유통 가공 전문기업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은 SIMPAC그룹 내 계열사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철강재를 확보하고 제조부터 유통 사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보유재고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물류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점에 최상의 경쟁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급부터 철강구조물제조까지 최적의 솔루션 제공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은 철강구조물제조 및 철강유통 업체로서 연간 6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2010년 10월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1호 입주기업으로서 연면적 22,300m<sup>2</sup>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하였고, 가공공정을 추가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체로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능, 고품질을 통한 고급 국내외 수요 적극 대응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적의 소싱과 최상의 가공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연 30,000톤 규모의 철강구조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개발 매뉴얼로 체계적인 공정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과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simpacholdings.com](http://www.simpacholdings.com) Tel: (032) 590-2000

 **SIMPAC** 홀딩스 ENG사업부문

# 심팩스토리

SIMPAC STORY 2018 NEW YEAR VOL.41



 **대한민국 중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SIMPAC그룹**

 **SIMPAC**

# 심팩 스토리

SIMPAC STORY  
2018년 NEW YEAR  
통권 41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8년 3월 28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2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웅기 대리  
02-3780-4923  
wklee@simpac.co.kr  
이준수 대리  
032-590-2022  
jsulee@simpac.co.kr

## (주)SIMPAC

이혜정 대리  
032-510-0022  
hjlee@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 (주)SIMPAC메탈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 MESSAGE FOR 2018

- 04 신년사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

## SPECIAL THEME

### 06 THEME ESSAY

하나된 열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다

### 10 THEME STORY

2018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 SIMPAC IN

### 14 SIMPAC NEWS

SIMPAC소식

### 18 현장을 가다

The First, The Best,  
현장에서 만난 SIMPAC의 저력

### 24 오늘은 제가 씁니다

'최대 실적' 생산팀,  
간식으로 대동단결!

### 28 SIMPAC SURVEY

수고하개 2017,  
기대하개 2018

### 30 기획칼럼

#1 슬기로운 직장생활

## SIMPAC 人

### 32 SIMPAC CREATOR

(주)SIMPAC 경영지원팀  
지영훈 사원

### 38 위라밸 프로젝트

1탄 Culture Life

### 40 가족과 함께

부모님께 전하는 편지

### 42 편지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 44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45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 신년사



친애하는 SIMPAC그룹 임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40년 만에 맞이한 12월의 한파 이후 맞는 새해,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겨울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회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느끼는 듯 합니다. 여러 임직원들께서 기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 전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많은 수의 제조업이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조선업의 그림자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계사업을 하는 (주)SIMPAC의 수주절벽이 곧 닥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도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2월 각각 한 주간 집단 연월차 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가득 찼던 공장에 썰렁한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3~4년 전 제가 말씀 드렸던 수주절벽, 생존전략, 살아남기 위한 파부침주의 결의의 필요성 등등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나 예측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SIMPAC INC는 지난해 전반기 확보한 물량으로 인해 지난해 이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적자는 면했으며, SIMPAC METAL은 SiMn 제품의 반덤핑조치의 발효와 예기치 않은 중국발 가격급등현상 덕분에 다소간의

수지개선을 이룩함으로써 그룹 경영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SIMPAC INDUSTRIES는 4년째 적자의 늪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전 임원의 퇴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더 나은 미래로의 탈출구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무엇보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임직원들과 함께 읽어보았던 '축적의 시간'이란 책에서 소개했듯이, 기초 기반 기술의 확립과 저변 확대, 모든 부서원들이 함께하는 체계적 R&D 활동, 경험 많은 직원들이 축적한 기술과 네트워킹을 후배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우리 회사 곳곳에서는 아직도 Top-down식 의사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도전과 변화를 필요로 하는 화급한 현실 타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품군의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맞추어야 내일이 보장되고 미래를 도모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기계사업부, 합금철사업부, 산기사업부 및 주물사업부 등 모든 사업부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경쟁국 대비 낮지 않은 생산비용, 노무비, 관리비, 물류비, 전기료 등으로 인해 우리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더 이상 가격상의 우위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년 안에 새로운 합금철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지 않는다면 결정적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프레스 사업부의 독일 R&D 센터도 더욱더 적극적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기술이 있으면 빨리 습득해야 하고, 방법이 없다면 서둘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수동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묻고, 찾으며, 시도해서 미래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새해부터는 각 분야에서 현장 기술의 체계적 향상 및 엔지니어의 멀티플레이어화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은 높은 임금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의 지혜와 노력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원초적인 질문으로 신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봉을 위해 나와 내가 속한 팀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판단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아침  
SIMPAC그룹 회장 최진식 드림



SPECIAL THEME / 하나된 열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다



THEME ESSAY

하나된 열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18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스페셜테마 섹션에서는 2018년과 대한민국에 빼놓을 수 없는 ‘올림픽’을 주제로 88서울올림픽에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또 한 번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중심에서 대표 기계철강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인 역사와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SIMPAC의 모습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 1988 서울부터 2018 평창까지

1988년 9월 17일, 서울 역사를 바꾸는 상징적 장면이 펼쳐졌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로부터 세 번의 눈물겨운 도전 끝에 비로소 얻은 승리의 결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동계올림픽으로 다시 한 번 세계의 대한민국의 이름을 각인시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평창!'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장 연단에 선 자크 로게 당시 IOC 위원장이 "PYEONGCHANG 2018"이라고 적힌 하얀 종이를 보여주며 '평창'을 외쳤을 때의 벅찬 감동은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기까지 평창은 2번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도전과 신념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평창은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동계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대한민국의 여정은 한 세대 전 우리가 198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때에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에서 성장하는 거대한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한국인의 저력 등이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세계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졌다.

이를 이어 2018년 대한민국은 하나된 열정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88서울올림픽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브랜드 향상을 통해 국력과 국격을 전 세계에 떨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재도약하는 기회이다.

하나된 열정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세계와 연결할 것이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2018년 3월 18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을 끝으로 평창의 꿈의 무대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SIMPAC그룹, 최고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념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렸듯, SIMPAC그룹도 마찬가지다. SIMPAC의 이름으로 서울, 인천, 포항, 당진, 광양.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철강 기업으로서 도약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기간산업 중심의 사업 전개를 통해 SIMPAC그룹은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걸어온 길은 쉽지만은 않았다. IMF, 업계 불황 등으로 SIMPAC그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 하지만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도 SIMPAC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집중했다. 심팩인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먼저 도전하며 내일을 내다보고 두려움 없이 실천했다.

다시 한번 선두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 SIMPAC그룹! 영원한 위기의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일류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계철강산업의 리더가 되는 그 날까지 SIMPAC의 끝없는 도전의 발걸음을 계속될 것이다.



올 한 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했듯,  
심팩인 모두에게 2018년이  
최고를 향한 꿈을 이루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꿈과 열정을 품고 SIMPAC그룹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심팩인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2018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대한민국 대표 기계철강사업, SIMPAC그룹은 1월 2일~3일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느새 2017년의 태양은 지고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2017년은 심팩인의 힘이 성과로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SIMPAC그룹은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IMPAC그룹 전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날 함께 했던 다짐을 기억하며,  
꿈을 향해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고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SIMPAC**  
2018.01.02. AM 09:00



임직원이 전하는  
2018  
새해 목표

**(주)SIMPAC**  
국내영업팀 김주환 과장

2018년은 SIMPAC그룹의 축적된 기술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해외 업체들과 효율적인 경쟁을 위해서 전사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을 개척하여 SIMPAC그룹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동화팀 유경민 대리**

열심히 달린 2017년, 모진 수주 추위 속에서도 영업 경제의 지도를 넓힌 점에 대해 SIMPAC의 일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SIMPAC의 성장 동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적 성장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IMPAC에게도 제 스스로에게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2018.01.02. AM 11:00

임직원이 전하는  
2018  
새해 목표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수영 과장

2018년 어려운 제조업의 시장 속에서 나의 업무가 아닌 우리의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하나의 단결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굳게 닫힌 시장의 문을 열어 봅시다. SIMPAC인더스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봅시다. 2018년에도 파이팅!

**산기영업팀 윤희철 대리**

작년은 대리로 진급함과 동시에 부산영업소로 발령받아, 바쁘고 힘들기도 했지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8년은 작년의 고생이 결실을 맺어 우리 SIMPAC인더스트리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수인계받은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또한 신규 거래처를 발굴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열정과 포부를 가지고 2018년이 시작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심팩인들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임직원이 전하는  
2018  
새해 목표

**SIMPAC메탈**

**당진공장 정완수 상무(공장장)**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SIMPAC메탈 임직원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2017년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SIMPAC메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 의식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무재해 공장을 만들어가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당진공장은 어느 때보다 Refine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당진공장에 QSS 활동을 도입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장 정리 정돈의 기본부터 공고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진공장 생산팀 정창훈 사원**

지난 한 해 목표는 '첫 직장 적응하기'였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문일지십(聞一知十)으로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는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문일지십'이 떠오르는 사원이 되어 주어진 위치에서 업무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모든 심팩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SIMPAC그룹의 성장의 도약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SIMPAC메탈 포항공장

2018.01.03. PM 02:00

## SIMPAC메탈 당진공장

2018.01.02. PM 03:00



임직원이 전하는  
2018  
새해 목표

**SIMPAC메탈**

**영업부문 부문장 정창배 상무이사**

공급 과잉 상태의 국내시장에서 내수시장 경쟁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직면에 있다고 봅니다. 2017년은 중동, 유럽, 인도 등 글로벌 네트워크 기초를 구축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국내·외 장기 계약 수요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매출구조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포항1공장 생산팀 안재형 과장**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품질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생산과 공정기술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해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온 SIMPAC그룹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IMPAC그룹! 파이팅!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이준수 대리**

SIMPAC그룹이 성장하는 순간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힘이 되어 제가 맡은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훗날 후배들에게도 SIMPAC그룹의 정신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선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2018년에는 다 같이 한뜻을 모아 계속해서 SIMPAC그룹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김유림 사원**

저에게 지난 한 해는 배울 것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은 저를 가르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팀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겸손하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SIMPAC홀딩스 ENG 가즈아~

12 SIMPAC STORY

13 2018 NEW YEAR

## SIMPAC NEWS

2018 NEW YEAR



SIMPAC 그룹

## 심팩최진식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은 2017년 12월 14일 SIMPAC홀딩스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윤학섭 감사와 김국찬 외 9명의 장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학금 수여식은 최진식 회장의 격려 인사, 장학생 발표 및 장학금 전달, 포토타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은 수여식에 참여한 인원을 포함하여 동국대학교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총 24명의 대학생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 전달했다.

최진식 회장은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재단법인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이사장 윤연수)은 2008년 설립 이후 매 해마다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기초로 삼고 있는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은 SIMPAC의 성장에 발맞춰 사회적 차원의 이윤 환원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시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 심팩최진식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 2018년도 시무식 행사 개최



SIMPAC그룹 각 계열사에서는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새해를 맞이하여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주)SIMPAC을 시작으로 SIMPAC메탈 포항공장까지 시무식이 진행되었으며, 각 시무식 행사는 국민의례, 최우수/우수사원 포상, 신년사, 임직원들의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진식 회장은 먼저 새해 덕담을 전하며 지난 한해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어려운 경영 환경 극복을 위해서 수고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올 한 해는 부정보단 긍정의 길로, 안된다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도전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SIMPAC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에 대한 상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끝으로, 시무식 행사는 새해 임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하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이겨내자는 힘찬 다짐과 약속으로 마무리되었다.



## SIMPAC NEWS

2018 NEW YEAR



(주)SIMPAC



## 부평구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전달

(주)SIMPAC은 지난 연말 지역사회의 공동발전과 후원을 위한 사회 공헌에도 힘썼다. 먼저 2017년 12월 19일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흥미영 구청장에게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고, 또한 2017년 12월 22일에는 해성보육원(인천광역시 남구)을 찾아 지역사회 후원금을 전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주)SIMPAC의 심웅섭 전무이사는 “요즘 한파로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며 좋겠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SIMPAC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기여하는 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대리 · 사원 동계 워크숍 개최

지난해 12월 15일~16일 양일간 올림픽의 도시 강원도 평창에서 SIMPAC메탈 대리 · 사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 날 SIMPAC메탈 포항공장, 당진공장, 서울사무소에서 떨어져 근무하던 40여 명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하얀 설원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며 스키와 스노보드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감성소통’을 주제로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의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을 들으며, 평소 원거리에 떨어져 유선이나 이메일로 업무를 주고받던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과정에서 조직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SIMPAC메탈

## QSS 혁신활동 kick-off 행사

지난 3월 16일, 포항1공장과 당진공장에서 2018년도 QSS 혁신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kick-off 행사가 있었다. 포항1공장은 2013년부터 QSS 개선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8개 기수 25명의 개선리더를 양성하였으며, 포항2공장의 경우 우수한 QSS 개선활동으로 해마다 수 천명씩 벤치마킹을 오는 QSS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포항공장의 우수한 QSS 개선활동을 당진공장에도 접목시켜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당진공장도 첫 QSS 1기 개선리더들이 선정되어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포항1공장의 경우 김용호 주임, 이성길 선임, 조영문 대리가 제9기 개선리더로서 2호기로 하 출탕장의 불합리 요소 개선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며, 당진공장의 경우 박철기 기장, 이현진 조장, 이재형 대리가 제1기 개선리더로서 제품 분 발생량 감소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포항1공장과 당진공장에서 같은 날 kick-off가 진행되었으며, 첫 걸음을 내딛는 당진공장 QSS kick-off에 격려차 참석한 송효석 사장은 SIMPAC메탈의 비전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사로 첫 출발을 하는 개선리더들을 응원하였다.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 어려운 이웃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은 12월 21일 인천시 서구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SIMPAC홀딩스 심웅섭 전무이사, 강범석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강 구청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SIMPAC홀딩스는 지역 사회를 위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 및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The First, The Best, 현장에서 만난 SIMPAC의 저력



SIMPAC홀딩스, (주)SIMPAC, SIMPAC메탈, SIMPAC인더스트리. 소속된 곳은 다르지만 심팩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됐다. 각각의 공간에서 자기 일에 마음을 기울여온 심팩인에게, 서로의 일터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고객 최우선 정신으로 무장한 SIMPAC 현장을 찾아 패밀리가 떴다.

이진수 과장 | (주)SIMPAC 생산팀

박수호 과장 |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김효수 사원 |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 # 궁금증으로 탐방에 나서다

해외현지 투자와 선진업체와의 사업&기술 제휴 확대로 세계적 기업을 목표하는 (주)SIMPAC, 한국 대표 프레스 메이커로 인정 받아 온 이곳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싶다는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박수호 과장과 생산팀 김효수 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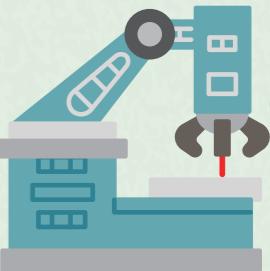
“계속 만나다 보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SIMPAC과 제가 그런 사이예요. 부평IC를 수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레 눈에 익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꾸 마주치니까 무슨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SIMPAC그룹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진수 과장  
(주)SIMPAC 생산팀

김효수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박수호 과장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아무래도 인연 같다는 김효수 사원의 말에, 더 오래된 인연은 자신이라며 박수호 과장이 나섰다. “이전 회사에서 업무차 SIMPAC인더스트리의 전신인 봉신과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 때부터 이곳에 대한 소식까지 두루 접하게 됐어요. 덕분에 원가 익숙한 느낌입니다.” 많은 직원 중에 이 두 사람이 걸음 한 것이야말로 인연이 아닐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현장탐방에 나설지 궁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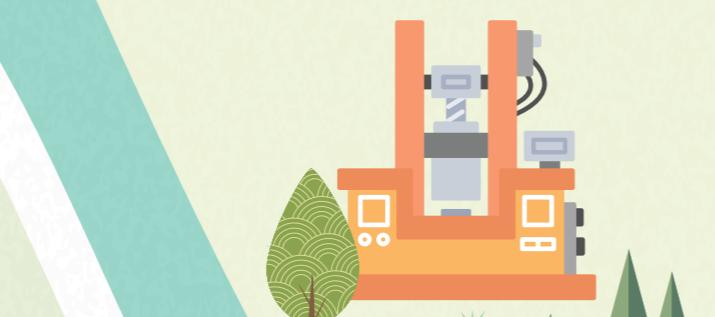
SIMPAC에서 가장 열띤 공간을 소개하기 위해 나선 이는 생산팀 이진수 과장. 10년째 현장을 지켜온 그가 두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특별히 생략할 것도 괴장할 것도 없습니다. 늘 가공 기계나 조립과정, 정리정돈, 안전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진수 과장의 자신감 가득한 말에 두 사람도 망설이지 않았다. 박수호 과장은 ‘프레스 사업부의 가공기술 같은 생산기술 쪽을 두루 살펴보기’를. 김효수 사원은 ‘깔끔하게 유지되는 현장 관리기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밝혔다.



### # 눈과 귀를 현장에 빼기다

현장팀방은 프레스의 실제 슬라이드를 조립하는 서브 조립파트에서 시작됐다. 귀청을 울리는 분주한 기계음에도 아랑곳없이 세 사람의 눈과 입이 바쁘게 움직였다. 거대한 구조물과 복잡한 기기에 관한 질문과 답이 오갔다. 현장에 익숙한 이들답게 소음에도 서로의 말을 놓치는 일은 없었다. 등허리를 파고드는 추위에도 작업복 한 번 다시 여미지 않았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새로운 기기에 쉽게 빠져든다던, 박수호 과장의 얘기는 사실이었다.

공장 한쪽을 넓게 차지한 프레임 가공 기계는 한 눈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그 모습에 현장관리기법이 궁금하다던 김효수 사원이 관심을 보였다. 한참을 둘러보다 정리정돈 방법을 묻는 그에게, 이진수 과장이 농담 섞인 답을 전해왔다. “윗분들이 자주 현장을 찾는 게 비법입니다. (웃음) 아무래도 이곳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이 많다 보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매일 바닥을 쓸고 닦는 건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정리정돈이 필요할 때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요. 직반장님들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 쉬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치우기를 공식화한 것도 도움이 됐고요.”



### # SIMPAC의 활약을 상상하다

세 사람의 걸음이 똑같이 멈춘 곳은 중형 프레스 앞. 고객사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 설계하고, 밤을 친구삼아 완성한 이곳의 작품이다. 이진수 과장은 중형 프레스의 구조별 특성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나갔다. 그들의 탐방은 프레스의 구동부 기어류와 대형 프레스로 이어졌다. 특히 천정에 달을 듯한 천 이백 톤의 대형 프레스는 감탄사를 불러냈다. 어디 이뿐이랴. 불꽃을 피워내며 현장 작업 중인 중소형의 프레스를 보고 있자니, 절로 상상됐다. 고객사의 공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SIMPAC 표 프레스의 활약이.

“평소 SIMPAC 하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회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생각이 실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내외 고객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김효수 사원의 칭찬에 박수호 과장 역시 동의를 표했다. “회사의 기술력과 실력 있는 인재가 만나니 시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경쟁업체의 기술을 카피하지 않고, 자체 기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 # 현장에서 만나 동료가 되다

어느새 훌쩍 시간이 흘러버렸다. 현장을 두루 돌아 다시 출발점에 선 세 사람. 탐방은 끝났지만, 그들의 질문과 답변은 끝날 줄 몰랐다. 알고 싶은 것도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았던 시간. 아쉬웠던 점은 없었을까. “출고된 기기가 많아서 박 과장님의 궁금해하셨던 가공기에 대해 제대로 소개를 못 했네요.” 이진수 과장의 아쉬움에 박수호 과장이 손사래를 쳤다. “대신 대형공장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크레인 같은 대차를 이용할 때면 늘 위험이 동반되곤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잘 통제하는 모습에서 한 수 배웠습니다.”

현장팀방은 심팩인들의 교류를 위한 자리다. 소속된 곳이 달라서, 일과 시간에 쫓겨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게 그들의 현실. 서로의 일터를 찾아 더 가까워지고, 정보를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으랴. “저는 업무적인 이유로 SIMPAC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업무차 들리는 것과 이번 탐방의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도 눈에 들어왔고요. 중간 모니터를 통해 조립현황을 살피는 일도 오랜만에 봐서 새롭더군요.”

김효수 사원의 얘기에 두 사람이 말을 보탰다. “교류를 제도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비슷한 일터에 가면 벤치미킹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전혀 다른 일터에 가면 이름만 알던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진짜 패밀리가 되지 않을까요!”





## SIMPAC 4.0시대를 향해, 오늘로 내일을 만듭니다

출발선으로부터 42,195km. 자신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에게만 허락되는 마리톤의 거리. 강인한 체력과 정신없이는 설불리 뛰어들기 힘든 경기지만, 도전자가 없던 적이 있었던가. 머리카락 한 올까지 고통에 휩싸인다는 35km 마의 구간에도, 멈추지 않던 도전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1973년 첫발을 내디뎌 2017년 유럽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주)SIMPAC은 그런 도전자 중 하나였다. 세계적 경제 불황이라는 마의 구간 앞에서도 묵묵히 달려온 의지의 주자. 백년 기업을 목표하는 SIMPAC의 도전 일기를 생산팀 김진호 팀장에게 들었다.

김진호 팀장 | (주)SIMPAC 생산팀

### Q. 긴 시간을 SIMPAC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본인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인가요?

심팩인의 이름으로 산지 올해로 16년이 됐습니다. 품질관리팀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참 많았죠. 입사 당시 만 해도 조직 관리나 업무 세분화가 요즘 같지 않았어요. 소속팀과는 별개로 닥치는 대로 업무를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고된 날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힘들게 배운 듯을 크게 봤더라고요. 그간 사직서를 두 번이나 써봤고 동기들과 아쉬운 이별도 겪었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팩인으로 남은 게 뿌듯합니다. 게다가 우리 손으로 일군 SIMPAC의 기술력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걸 보면, 현장을 지켜온 저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마 전 직원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회사가 받는 박수가 곧 내가 받는 박수라고요.

### Q. 그렇게 따로 떼어볼 수 없는 SIMPAC은 어떤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나요?

프레스 생산 전문기업인 (주)SIMPAC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분야의 회사지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입니다.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노트북, 차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기를 만드는 이가 (주)SIMPAC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만드는 프레스는 여러 제품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높은 사양의 독창적인 프레스를 개발할수록 노동자는 안전을, 기업은 효율성을, 소비자는 고품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해왔고 또 해나갈 역할이죠.

### Q. SIMPAC이 굳건히 제자리를 다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장입니다. 회사 내 관리체계가 잘 잡혀있는 것도 강점이지만, 현장이 강하지 않고서는 고비를 넘기기가 쉽지 않죠. 선조의 씨 간장을 토대로 최고의 맛을 내는 종부처럼, 우리는 선배들이 전해준 노하우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의 장인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선배가 어깨너머로 배운 노하우에 자신의 기술을 더해 후배에게 전하면, 그는 또 다른 노하우를 더해 또 다른 후배에게 전하는 것이죠. 사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현장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맞춤 노하우 없이는 시간과 힘,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덕분에 예전이면 10년은 걸려 도달할 엔지니어 자리가 이제 3년이면 가능해졌고요. 신입이 숙련자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현장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 Q. 그간 현장에서 맞이한 여러 고비 중에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달의 악몽이라고 할까요? 2008년 후반에 시작된 세계적 경기불황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달려오던 터라, 하루아침에 반 토막 난 수주현황에 말이 막혔어요. 11월 내내 기계들이 기득했던 현장이 12월이 되면서 텅 비어버렸죠. 숨 돌릴 틈도 없이 모두가 일에 매달렸는데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러다가 IMF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면 말이 진짜였어요. SIMPAC이라는 브랜드네임이 돌파구가 된 겁니다. SIMPAC이니까 라며, 고객사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회복단계를 거쳐 이듬해 3~4월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섰고요. 당시를 떠올릴 때마다 앞으로도 SIMPAC이라는 이름을 위해 노력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 Q.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런 경험이 심팩의 내일을 만들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을 더듬다 보면 (주)SIMPAC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과거의 SIMPAC은 정신없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20대 중반의 직장인 같았어요. 바쁘다 보니 요즘 뭐가 인기인지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죠. 실제 몇 년 전까지 우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했고, 최신 트렌드를 연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SIMPAC은 주변에서 어떤 유행 옷을 입는지, 내 차림새는 괜찮은지 살필 여유가 생긴 20대 후반의 직장인과 닮았어요. 얼마 전 우리는 북미와 유럽 쪽 기기 전시에 출전해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미적 으로도 뛰어난 선진업체의 기기 때문에요. 전시 내내 기능과 미적 요건을 두루 갖춘 프레스를 꼭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를 통해 제가 꿈꾸는 (주)SIMPAC의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년 기업으로 발전해 전 직원이 정년까지 힘껏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혁신적인 프레스 개발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프레스에 스마트 기능이나 사물인터넷 기능을 접목해보는 일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한 걸음씩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 Q. 새로운 SIMPAC을 위해서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전 직원이 각자의 뜻을 충실히 해야 하고, 지금껏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거로 생각합니다. 걱정할 사람은 제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 일할 때면 최고의 깊은 모드가 작동하는 편이라, 힘들다고 느끼는 후배들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좀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높추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낸 16년의 경험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업무에서는 예전처럼 깐깐하고 양보 없이, 그 외에는 후배들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회사를 지켜온 동료들에게 고민하는 2018년을 보내자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다소 정체돼 보이는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 SIMPAC 4.0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최대 실직' 생산팀, 간식으로 대동단결!

SIMPAC메탈 당진공장

생산지원팀 장진석 부장

생산팀 전기로반 D조 남호문 주임, 손상호 조장,  
박재갑 조장, 이상욱, 차기풍, 김상준, 이기정 사원

생산팀 설비반 D조 이주형 사원



'오늘은 제가 씁니다!'는 그룹 내 임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팀과 팀원들을 위해 간식을 전달하는 이벤트 코너입니다. 간식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심팩인들이 일하는 현장과 앞으로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호의 주인공은 SIMPAC메탈 당진공장 생산팀입니다.



생산지원팀  
장진석 부장

"사랑합니다!" 우렁우렁한 목소리, 불쑥 내민 손가락 하트, 생산지원팀 장진석 부장이 족발을 양손 무겁게 들고 나타나자, 쇠물과 싸우는 생산팀 사나이들이 그간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한다. 그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던 장 부장, 겸연쩍게 짐을 내려놓는가 싶더니 어느새 활짝 웃으며 하트 모양으로 겹쳐진 엄지와 검지를 들어올린다. 함박눈 쏟아지는 일요일 늦은 밤, SIMPAC메탈 당진공장 전기로 제어실은 따듯함으로 가득 물들었다.



24 SIMPAC STORY

66

업무 시간에는 규율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외 시간에는 원래 형님 동생하면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격하게 애정표현을 받기는 난생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사들고 온 족발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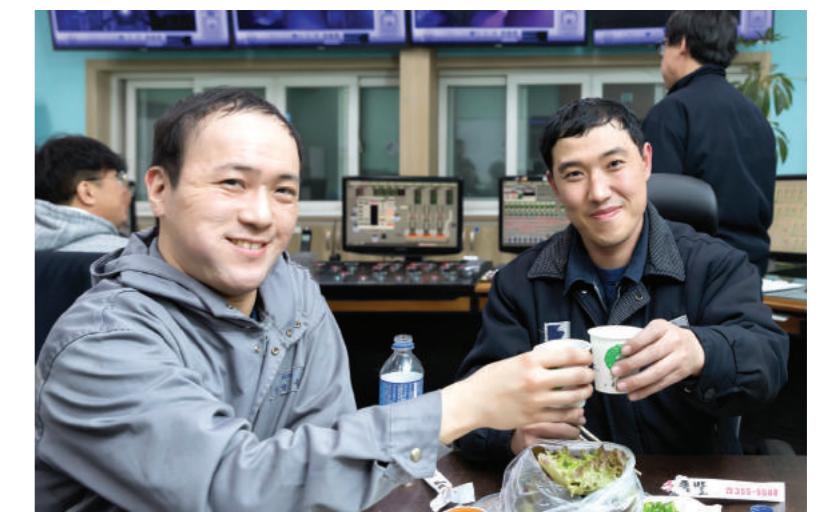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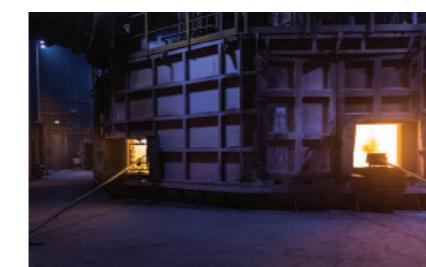
## 오가는 야식, 피어나는 이야기꽃

사실 당진공장 생산팀에게 있어 주말 아간 간식 시간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4조 3교대로 쉴 새 없이 일하는 생산팀을 위해 매번 치킨, 피자, 족발 등 다양한 간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다만 오늘이 특별한 이유는 생산지원팀 장진석 부장이 야식을 직접 사들고 왔다는 것. 평소에도 종종 현장에 나타나 생산팀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곤 했지만 오늘처럼 장 부장이 직접, 그것도 대설특보를 뚫고 족발을 사오는 날은 흔치 않다. 그렇기에 장 부장의 깜짝 등장에 더더욱 감동한 생산팀 직원들, 버선발로 그를 맞이하더니 불현듯 손가락 하트와 함께 "사랑합니다!"를 외친다.

장 부장이라고 뺄쏘나, 먹음직한 족발 세트와 손가락 하트로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건네고는 멋쩍은 듯 함박웃음을 터뜨린다.

"업무 시간에는 규율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외 시간에는 원래 형님 동생하면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격하게 애정표현을 받기는 난생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사들고 온 족발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웃음)"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 부장 말이 끝나자마자 손사래 치며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어보이던 생산팀 직원들, 금세 구김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장 부장을 자리 한기운데에 앉힌다. 팀원들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자 곧 고소하고 기름진 족발 냄새가 전기로 제어실을 가득 메운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먹방' 시간! 바빠진 젓가락질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장 부장과 생산팀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난다. 그 주제는 단연 당진공장의 최대 실적 달성이었다.





## 놀라운 성과 일궈 낸 '끈끈한 동료애'

2011년 이후, 합금철 시장은 기나긴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제철 업계 불황과 중국의 저가 공세가 겹치면서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것. 이런 와중에도 당진공장은 맑은 바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분전을 거듭했다.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기술 개발과 개선 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원가 절감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때마침 시장도 2016년부터 호조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당진공장은 드디어 일을 내고야 말았다. 생산, 매출, 영업 이익 앞에 '최대'라는 두 글자를 붙인 것이다. 경영·인사·노무·생산·영업 등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뜰뜰 뭉쳐 빛어낸 값진 성과지만, 장부장은 특히 생산팀의 노고를 높이 샀다.

"과거 포항공장에 있을 때 생산팀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현장의 고충을 잘 압니다. 펄펄 끓는 셋물과 맞서 싸워야 하고, 4조 3교대로 365일 공장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장 주요 제품인 폐로망간·폐로실리콘망간·중저탄 생산에 대해 설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까지, 신경 써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해와 최대 생산을 동시에 일궈 내,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 이익 달성을 일조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장부장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당진공장 준공 이후 줄곧 생산팀 D조 주임을 맡고 있는 남호문 주임이 말을 받았다. 생산지원팀의 다각적인 지원이 생산팀의 최대 생산을 이끌어 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회사와 생산지원팀이 현장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진공장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부장님은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생산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알고 때맞춰 지원해 주십니다. 수시로 오셔서 고충 상담, 설문조사, 민원 접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것도 팀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희 모두가 장부장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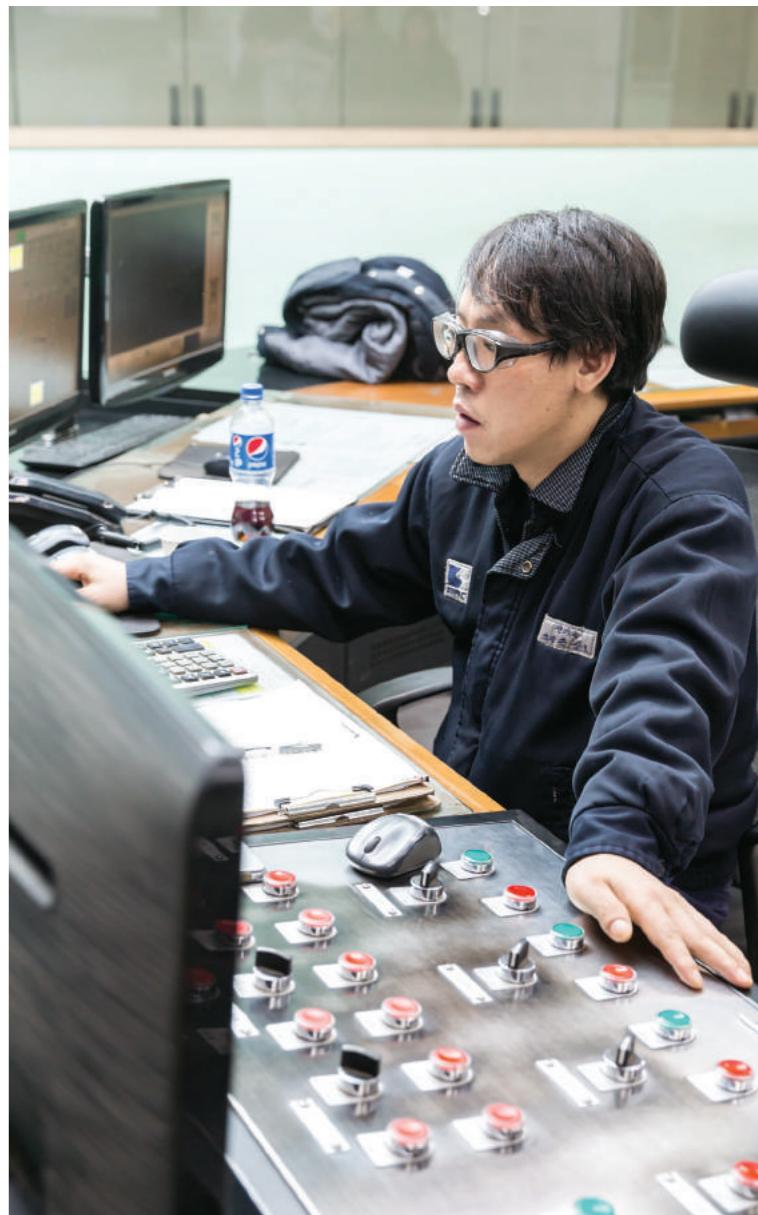


## 최대를 넘어 최고를 향해 질주하다

회사의 뒷받침과 더불어 최대 생산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단단한 팀워크와 열린 소통이다. 생산팀에는 포항공장에서부터 30년 경력을 쌓아 온 베테랑 직원들과 당진공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원들이 두루 포진돼 있다. 언뜻 들으면 세대 차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 또래끼리 모여 있는 모임보다 활발하고 유쾌하게 이야기가 오간다. 이처럼 편안한 교류의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숨겨진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팀은 일반적인 회식은 물론, 스크린야구·영화 관람·볼링 등 젊은 직원들 취향에 맞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합니다. 작년 최대 성과의 보람을 모두 함께 누리기 위해, 선배 직원들이 합심해 상여금 체계를 젊은 직원 중심으로 바꾸기도 했죠. 그만큼 젊은 직원들도 선배들의 조언과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가 하면, 어려울 법한데도 늘 먼저 다가와 줍니다. 결국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심이 바위 같은 팀워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막 무술년을 맞이한 당진공장과 생산팀은 연초부터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작년의 성과를 뛰어넘는 최대 실적 달성과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 바로 그것. 합금철 시장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만큼, 장부장과 생산팀원들은 작년처럼 내부 결속력을 다져 나가면 올해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대를 넘어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SIMPAC메탈 당진공장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66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장부장님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장부장님의 격려와 응원에 부응하는 생산팀을 만들기 위해 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남호문 주임



66

족발에 막국수까지, 푸짐한 아식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큰 형님처럼 따뜻한 위로와 유쾌한 농담을 건네주시고 생산에 치질 없도록 지원해 주시는 장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99



차기풍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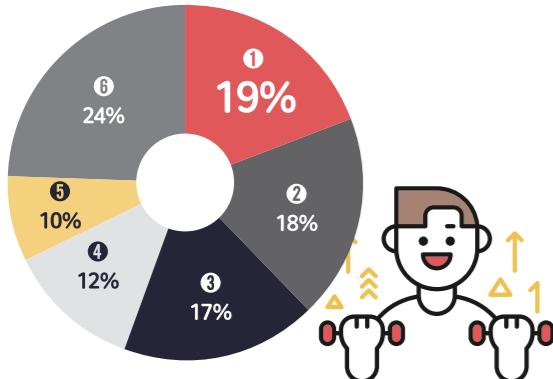


# 수고하개 2017 기대하개 2018

설문 기간: 2월 1일 -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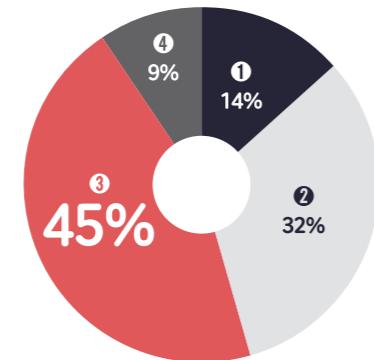
새해가 되면 자기 계발, 운동 등 저마다의 목표로 알찬 1년을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우리 임직원들은 신년 목표를 얼마나 이뤘을까요?  
2017년 목표 달성을 비결과 실패 원인을 돌아보며 2018년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알아보자 합니다.  
본 설문은 총 158명의 SIMPAC인들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 02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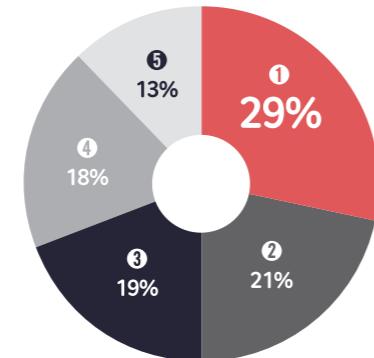
- ① 변화 후 내 모습을 구체화하고 상상했다. 19%
- ②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즐겼다. 18%
- ③ 구체적으로 월별, 주별 계획을 세웠다. 17%
- ④ 같은 목표를 세우고 함께 실천한 사람이 있었다. 12%
- ⑤ 나의 계획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10%
- ⑥ 기타 24%

## 01 2017년 한해 신년목표, 얼마나 지키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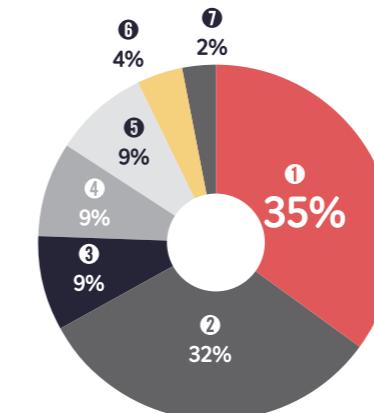
- ① 최선을 다했어요 엄지 칙 14%
- ②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 32%
- ③ 더 열심히 못해서 아쉬워요 45%
- ④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9%

## 03 반대로 신년목표가 작심삼일이 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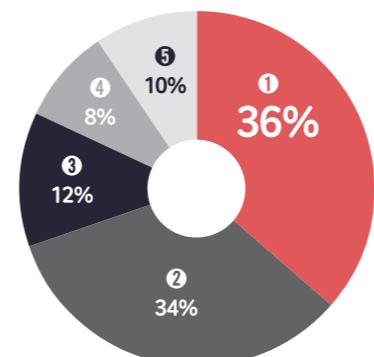
- ① 계획달성을 대한 의지 부족 29%
- ② '내일부터', '1일부터' 등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 21%
- ③ 의욕만 앞선 과도한 계획 19%
- ④ 24시간이 모자라! 여유시간 부족 18%
- ⑤ 기타 13%

## 04 2018년에는 꼭 이루고 싶은 새해 목표는?



- ①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 자기 계발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등) 35%
- ② 뭐니 뭐니 해도, 건강관리 (금연, 다이어트, 운동 등) 32%
- ③ 슈퍼그래잇, 재무 설계 (저축, 내 집 마련 등) 9%
- ④ 취미 생활 하나쯤은 마스터하기 (여행, 독서 등) 9%
- ⑤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SIMPAC인이 되자 (승진, 업무 성과 등) 9%
- ⑥ 이번 해는 꼭 이루리라 결혼, 자녀 계획 4%
- ⑦ 기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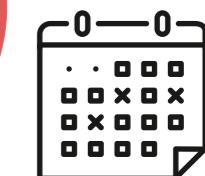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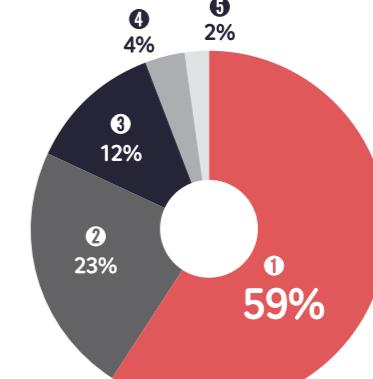
## 05 2018년 새해, 이것만은 버린다는 것은?



나쁜 습관



## 06 꾸준한 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 첫 번째 이야기 직장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Best 7



취업포털이 남녀 직장인 56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꼭 지켜야 할 직장인 에티켓으로 마주쳤을 때 인사하기(52.2%), 공손한 언어 사용하기(45.5%), 부르면 대답하고 부른 사람 바라보기(23.8)가 1, 2, 3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던 예의범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 잘하고, 높임말 잘 쓰고, 부르면 대답하는 당연한 일들을 서로 꼭 지켜줬으면 하고 바란다는 게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을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 #1. 인사가 만사!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쓴다는 뜻도 있지만, 서로 마주치거나 헤어질 때 예의를 차리는 일도 인사라고 합니다. 人事라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요. 얼굴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서로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목례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 #2. 어렵지만 지켜야 할 높임말

신입사원이 선임을 부를 때 제일 무난한 호칭은 '선배님'입니다. 선임이 아직 직급이 없는 평시원일 때 유용합니다.

"00씨"라고 호칭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나 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는 나이를 내세우기 보다는 직급을 부르거나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부장님이 대리님을 찾으실 때 "대리님 자리에 안계십니다."라고 하면 부장보다 대리를 높이는 말입니다. "대리님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 #3. 명함은 누가 먼저 주는 걸까?

명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드려야 합니다. 명함 지갑을 찾느라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명함을 받는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건네야 합니다. 상대의 명함을 받으면 바로 집어넣지 말고, 한 번 읽은 후에 넣도록 합니다.



회의나 미팅 자리에서 명함을 받으면 미팅이 끝날 때까지 테이블 위에 놔둡니다. 특히 어렷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직급이나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 잘 펼쳐두면 유용합니다.

### #4.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 보지 않기

근무시간에 하는 사소한 행동이 업무 시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면, 커피를 마시러 일어서는 경우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 애교로 빠줄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개인적인 인터넷 쇼핑을 한다던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거래한다던가, 사무실 전화를 개인적으로 쓰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해도 맡은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5.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

출근시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회의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사람의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의 주제를 숙지하고, 제 시간에 회의실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이왕이면 준비를 마치고 5분 전에 회의실에 도착합니다. 메모 용지와 필기구를 지참하고, 회의 진행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 #6.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

휴대폰은 엄연히 개인 용품입니다. 물론 업무 때문에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실에서는 꼭 진동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회의실에서는 무음으로 해두는 편이 더 좋겠지요. 휴대폰으로 개인 전화를 받을 때는 잠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받고, 업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통화를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 #7. 설 연휴를 맞아 덕담을 나누려면

새해가 되면 무난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 좋습니다. 원래 가까운 친지나 웃어른끼는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것이 예의이지요. 만약 절을 받았을 때 회사의 상사나 부하직원의 관계라던가, 제자 등 상대가 성인이라면 답배를 해야 합니다. 웃어른이 절을 거절한다거나, 병석에 누워계시면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새해의 덕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는 말 보다는 "올해도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란다.", "올해도 건강하게 등산 즐기세요." 같은 말이 좋습니다.

## 여행이 나에게 선물해준 몇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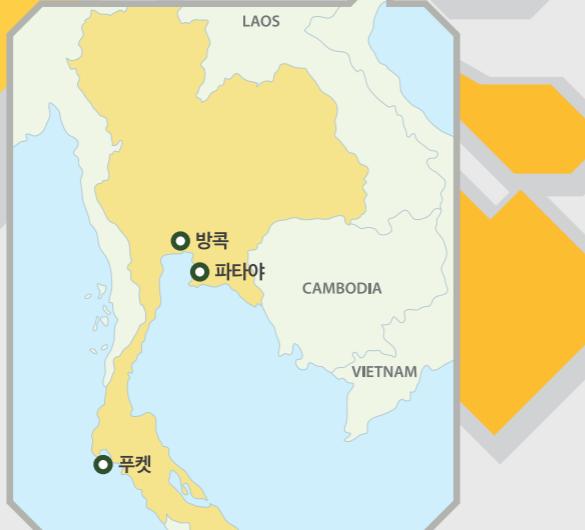
Europe

무거운 눈꺼풀을 재촉해 출근하고, 책상과 한 몸이 돼 서류에 파묻히고, 잘 살고 있는 건가  
반복되는 고민에 빠지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해낸 심팩인들이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색다른 매력을 찾아낸 그들을, 우리는 삶의  
창작자라 부르고 싶다. 그 첫 창작자는 세계의 도시를 누벼온 여행 즐김이다.



Asia

Africa



Americas



“어느 날 갑자기, 배낭 하나 둘러메고 훌쩍 떠나는 내 뒷모습.

직장인의 상상목록 윗자리에나 올라있을 법한 이야기죠. 게다가 여름휴가도 아닌  
근무 틈틈이 떠나는 여행이라면, 민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며 오해받기 좋을 테고요.  
이렇게 마음은 굴뚝이지만, 막상 떠나려면 가벼운 지갑이 책상 위 서류가 발목을 잡는  
직장인의 여행.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팔년 차 여행 즐김이랍니다.  
저는 (주)SIMPAC 경영지원팀에서 총무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SIMPAC인 지영훈입니다.”



지영훈 사원 | (주)SIMPAC 경영지원팀

“몇 년 전에 갔던 도시를 다시 찾으면, 그간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특별한 감정이 솟아납니다.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곳의 과거와 현재가 제 마음에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여행자가 된 것도 같고요.”



#### 여행 나만의 방식대로

시작은 2010년 패키지로 떠난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검색 한 번이면 수천 개가 넘는 다낭 여행기가 쏟아지지만요, 그때만 해도 다낭은 낯선 곳이었죠. 일부러 한국인이 드문 곳을 찾아 떠났던 다낭은, 여행지라는 말보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어요. 우리와는 다른 그곳 주민들의 일상에 걸음을 멈추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은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베트남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시원한 현지 맥주 한 잔에 배앓이를 제대로 겪었어요. 무려 4kg이라는 뜻밖의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베트남에 가나 봐라. 첫 여행의 추억이 너무 아팠던 터라 두 번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 돈 주고 고생을 사서 했는지… 그렇게 마음이 접하는가 싶었는데 웬걸요. 새록새록 떠오르다 못해, 다낭에서의 기억이 점점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하던 ‘여긴 어디? 나는 누구?’가 현실이 됐다고 할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동남아 여행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제 여행 방식은 두 가지에요. 동남아의 어느 도시 그리고 셀카봉 없이. 저는 여행 한 번에 이웃 국가까지 두루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행지를 선택할 때면 늘 한 도시를 정해,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죠. 지금껏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 있는 도시 서른 곳을 탐방했는데요. 몇 년 전에 갔던 도시를 다시 찾으면, 그간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특별한 감정이 솟아납니다.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곳의 과거와 현재가 제 마음에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여행자가 된 것도 같고요.

나 홀로 여행자의 필수품이라는 셀카봉도 저한테는 짐일 뿐입니다. 제 모습보다 도시의 느낌과 풍경 찍기를 더 원하거든요. 좋은 건 카메라에 담지 말고 눈에 담으라는 말을 실천 중인 거죠. 사진은 멈춰있지만, 눈에 담은 이야기는 언제라도 재생되니까요.

“낯선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여행의 마력.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다니는 저의 여행은 단순한 현재진행형입니다.”



#### 여행 낯설어서 더 좋은

저 같은 여행 즐김이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경비는 어쩌려고 혹은 일은 어떤하고 반복되는 걱정과 충고에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사실 자꾸만 훌쩍 떠나는 저의 여행을 가족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일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 않으나며, 어머니께서 가장 크게 반대하셨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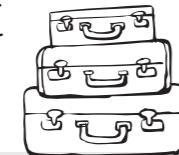
여행지에서 맛이하는 낮과 밤을, 낯선 이들과의 멋진 만남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떠났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바로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보홀.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야경,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를 달리지게 했어요. 지금은 아들보다 더 자주 떠나는 여행 마니아가 되셨고요. 저한테서 어머니께로 다시 형에게로, 그렇게 가족 모두가 여행 애호가가 돼버렸습니다.

특별히 주머니가 두둑해서 여행을 즐기는 건 아니에요. 저의 모든 여행은 배낭여행이거든요. 편안한 숙소와 비싼 체험보다는요. 많이 걷고 많이 보고 그곳 사람들과 섞여 음식을 맛보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수줍음 많던 제가 처음 본 이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요. 예전과 달리 모든 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마구 움직이죠. 여행 구력이 쌓이면서 각 도시가 품은 역사에 관심이 생기고, 건물 하나도 그 나라 기후와 문화에 비춰보는 눈을 갖게 됐어요. 마치 아이가 사춘기를 거쳐 성장하는 것처럼, 여행을 통해 저도 발전한 건 아닐까 해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연차를 더 해 여행하다 보니, 더욱 성실한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떠나기 전에는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고요. 돌아와서는 다음을 위해 두 배 더 열심히 일합니다. 다시 여행 일람이 올릴 때까지, 업무에만 집중하는 거죠. 일과 여행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업무에 대한  
도전정신을 키웠고,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은 동료들과의 소통방법을  
바꿨습니다.”



#### 여행 지금이 떠날 순간

SIMPAC의 공식 여행 가이드, 팔년 차 여행 즐김이에게 자연스레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표인貌似요. 여행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여행 팁을 전수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행지 추천과 항공권 구매 노하우, 여행지 에피소드 방출 같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웃음) 한번은 회사 간부 단체여행에 동행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현지 가이드의 불합리한 안내를 막고, 최고의 경로를 제시하는 거로 제 몫을 해냈고요. 내공이 더 쌓이면 동남아 여행에 관한 정보를 회사 밖 초보 여행자들과도 공유할 생각이에요.



SOME DAY  
I'M GOING  
TO  
TRAVEL  
THE  
WORLD

가령 아름다운 해안을 지난 베트남 나짱(나트랑)에 가면, 진흙 온천에서 반신욕을 즐겨야 하고요. 다낭 옆 마을 호이안의 밤은 매일 불빛으로 물들죠.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후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면 비단가 리조트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시장에 가면 필리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바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에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수입될 뿐 아니라요. 안전하고 물도 깨끗하며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바다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스쿠버다이빙을 놓치지 마세요.

여행의 즐거움이 이동 거리나 경비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까운 곳이라도 잘 아는 곳이라도 떠남으로써 얻는 게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삼월이면 다시 여행길에 오를 예정이에요. 여행 중에 사귄 베트남, 일본 친구들과 매년 여행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여행의 마력.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다니는, 저의 여행은 당분간 현재진행형입니다.



Palau



Philippines

필리핀으로 아홉 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홉 번 모두 다른 도시와 섬들을 가봤지만,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 하나 빠짐없이 멋있답니다!



Thailand



Vietnam



여기는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 중 히롱베이!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경이로운 자연에 절로 감탄이 나오던 히롱베이는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웅기 대리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직장인 신조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워라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심팩인들은 어떻게 워라밸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워라밸 프로젝트. 일상에서 만나 다양한 문화 예술을 통해 진정한 워라밸을 실천하는 심팩인의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일시 | 2017. 11. 28-2018. 02. 25  
장소 | 강남미술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지내는 일상 속에서 하루쯤은 업무 외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주로 도서관을 가거나 미술관을 가는데요. 심팩인 여러분들과 저의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하고자 두 가지 전시회 관람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강남에 새로 생긴 강남미술관에서 “돈백전”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돈백전”이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展의 약자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강남미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전시기간을 놓쳐 아쉬워하고 있는 찰나에 의외로 인기를 끌어 전시회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어 2월 중순경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한 번쯤은 상상해보셨을 돈 많은 백수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전시물과 멤버들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사진도 찍고 관람도 하는 액티비티한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인기를 블로그들을 통해 미리 접하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입장하고 관람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오픈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지 입장은 기다리지 않았지만 사진을 찍고 관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잠시의 기다림은 필요했습니다. 물론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웃음)

돈백전은 지옥철부터 한도 초과, 로또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공감할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또에 대한 콘텐츠에는 눈에 띄었습니다. ‘로또가 된다면’을 주제로 관람하신 분들의 원대한 계획들이 포스트잇으로 붙여져 있는데 사실 공감 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 미친 듯이 쇼핑하겠다, 차를 구입하겠다 등 역시 사람 생각하는 건 다 같은가 봅니다.

전시회를 다 본 후 혹시 하는 마음에 로또를 하나 구입했지만 역시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느끼면서 잠시나마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로또가 되지 않아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취업난 속에서 매일 출근할 곳과 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하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제가 다녀온 전시회는 끝났지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잠시나마 다른 것으로 시야를 돌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Paper, Present :  
너를 위한 선물**

일시 | 2017. 12. 7-2018. 5. 27  
장소 | 대림미술관

2월에 또 한 곳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니 굉장히 전시회를 자주 다니는 문화인처럼 보일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이번 전시회는 대림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회의 티켓이 있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게 되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공짜 관람이라 다녀왔다는 것이지요.

Paper, Present 전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팀의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종이로 만든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즐거운 나의 집’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던 Paper, Present 이전 전시는 대기 줄이 길어 포기했었는데요. 한번 더 시도한 끝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관람을 할 수 있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도 돈백전처럼 실제로 관람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앞서 관람했던 전시회와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종잇조각들이 모여 자연의 경이로운 장면, 평범한 일상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순간, 또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법한 설렘과 추억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들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종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느낄 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 종이라는 하나의 주 소재를 활용했지만, 세계적인 아티스트 손에서 개별적 예술성을 담고 있는 결과물들을 감상하는 내내 감탄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종이로 보여주는 무한한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 워라밸 이야기, 제가 직접 보고 즐긴 전시회 관람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심팩인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시간이었나요? (웃음) 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을 통해 워라밸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워라밸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나요? 여행, 취미 활동, 자기계발 등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심팩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업무에는 효율을 삶에 여유를 주는 워라밸 라이프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부모님께 전하는 편지

나의 오늘을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양예은 사원 + 어머니 설종업님

### To.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 막내딸 예은입니다~ 엄마한테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 말고 편지를 쓰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내가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엄마가 나를 마냥 어리고 아기처럼 봤었는데, 벌써 대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웃음) 엄마도 엄청 신기하고 뿌듯하지? 내가 취업했다고 얘기했던 날 엄마의 반응이 기억나. 완전 깜짝 놀라 했었잖아. 이제서야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나도 사실을 얼떨떨했어.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회사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어. 그동안 엄마가 나를 잘 가르쳐주고 키워준 덕분이라고 생각해. 평소에는 괜히 민망해서 표현을 잘 못했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표현할게요!

아직 일도 배우고 적응하는 중이라 바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는 엄마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도 다니고 효도하고! 세 딸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시 한 번 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가르쳐주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노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사랑해 엄마♥



### To. 사랑하는 막내딸 예은이에게

사랑하는 막내딸 예은아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다! 어리게만 느껴지던 막내딸이 언제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까. 언제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하고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 되었는지... 정말 고맙다.

막내딸에게 해준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바르고 예쁘게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단다. 사랑하는 딸아,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딸이 되어주렴. 무엇보다 건강하고 회사생활도 잘 해주길 부탁한다.

우리 딸이 준 편지를 읽고 엄마는 너무 감동이었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참 기쁘다. 우리 막내딸 예쁘고 바르게 자란 멋진 모습에 엄마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는 우리 막내딸이 무슨 일이든 잘 할 거라고 믿는다. 지금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딜 가서든 사랑받는 딸이 되길 엄마가 기도할게.



### (주)SIMPAC 개발팀 최유진 사원

#### To.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랑, 딸 유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쓰는 편지네요. 이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언제 썼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편지 써드려야겠어요.(웃음)

겨울이라는 것이 실감 나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드렸던 히트텍 꼭 껴입으시고 추위 조심, 감기 조심하세요!

아빠, 요즘 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아빠를 보고 저도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올해에는 아빠도 저도,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항상 응원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엄마, 회사를 다니게 된 뒤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날이 줄고 밖에서 밥 사 먹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었던 것인지 느꼈습니다.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엄마, 아빠도 일하고 저도 일하느라 바쁜 일상 탓에 같이 살지만 못 볼 때도 많아진 것 같아요. 같이 저녁 먹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2018년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는 딸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SIMPAC메탈 포항1공장 생산팀 오명섭 사원

#### To.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저 명섭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 만인지… 쑥스럽기도 하지만,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매일 빙지만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쭤보지도 못한 아들이네요...

벌써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엄마, 아빠께서 나이가 드신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렸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 저녁 늦게 퇴근을 할 때면 수십 년을 이렇게 일해오신 아버지 그리고 저를 기다리실 어머니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학생 때는 노느라, 공부하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엄마, 아빠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니 죄송한 마음만 더할 뿐이네요.

항상 저를 믿고 이제 시작한 첫 사회생활을 묵묵히 항상 응원해주시는 엄마, 아빠. 제가 큰 돈으로 효도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다정한 아들로 두 분께 효도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는 아들 위해 지켜봐 주시고 요즘 날이 많이 출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아들 오명섭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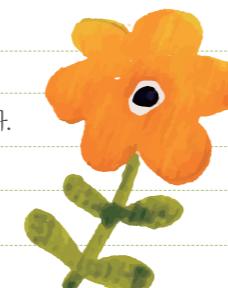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이길재 차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산기영업팀 유금홍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인사지만 이렇게 새삼 편지로 전하려니 낯간지럽네요.  
제가 입사했을 2015년에는 차장님께선 국내영업팀 저는 해외영업팀으로 소속이었고, 또 같은 해에 차장님께서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발탁되어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항상 대화는 전화통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화제가 적어 일에 대한 질문도 선뜻 드리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제 위치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여 제 뜻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 즈음, 영업팀이 통합되고 또 차장님께서 인천으로 올라오면서 전 제가 자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장님과 같이 외근이나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된 것은 최근이지만 국내 고객사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기술과 지식,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는 영업 노하우까지. 항상 느긋하고 차분하신 모습으로 사원들에게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네던 차장님의 맛나 싶을 정도로, 영업 필드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그 모습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외근 중에 같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많은 상담을 드립니다. 일에 관련된 자잘한 질문부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 어떠한 말에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차장님께 많은 것을 배워 나중에는 후배들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차장님께서는 지치셨을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베풀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p.s 영업팀의 생명선! 차량 이동이 많은 차장님께 차량용 휴대폰 고속충전기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유금홍 드림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유금홍 사원에게



반가워요 금홍 씨~

우리 팀의 든든한 기둥! 금홍 씨가 써준 편지와 선물 잘 받았어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니, 후배에게 편지 받는 날도 오네요.

내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뜻깊은 마음을 전달해줘서 고마워요.

본사 근무가 새롭고 낯선 상황에 아침마다 금홍 씨 덕분에 미소를 지을 수 있어서 참 고마워어요.

금홍 씨의 편지를 읽고 같이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넘었다는 사실에 새삼 세월에 빠름을 느끼며 또 다른 환경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같이 동행하며 협업하는 사이에 금홍 씨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업무 하나하나를 수행해 가는 과정을 게임처럼 즐긴다는 것에 저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해요.

앞으로 삶에 전문지식과 배경지식이 중요한 환경에 꾸준하게 갖추려 전진하는 금홍 씨와 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아침에 인사를 건네며 항상 웃을 수 있는 동료로 오래 봅시다.



From.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이길재 차장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거나 칭찬해 주고 싶었던 직장 동료 혹은 선배에게 편지를 작성해보세요.

사보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신청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작성하시는 분께 선물지원비를 제공해드립니다!



##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2018년 개띠의 해를 맞이 하여 SIMPAC인 곁에 있는 반려견과의  
알콩달콩한 생활을 소개합니다.



SIMPAC메탈 포항2공장 ROLL생산팀

김윤성 팀장

제목: 사랑스런 예쁜 딸, 마루를 소개합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아들 모두 출가하고 썰렁해진 우리 집에 이 녀석 애교마저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엽고 영리한 녀석입니다.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우리 가족과 콩이가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기득했으면 좋겠네요.



SIMPAC메탈 합금철영업팀  
박춘길 사원



제목: 우리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막내, 푸딩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데리고 온 푸딩. 하지만 지금은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염둥이입니다. 산책하기를 좋아해 산책 나가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네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 똑똑하게 대소변 징소를 가리는 네 덕분에 가족들의 수고가 덜었던다. 몸이 약해 병원에 자주 갔지만, 올해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 ^^



SIMPAC메탈 포항1공장 생산지원팀  
박경호 사원

제목: 애증의 12살 비글, 복실이

비글은 타고난 시냥꾼으로 활동성이 강하고 자기가 추적한 길에 털을 뿌리고 그 털 냄새를 맡고 집을 찾 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활동성이 강해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고, 온 집안에 털을 뿌리고 다니는 애증의 12살 비글, 복실이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항상 내 옆에서 고마워~ 복실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CONGRATULATIONS !



첫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2017년 1월 7일

(주)SIMPAC 생산팀 조립3반  
노현호 선임 아들 노승윤 군



제 품에 처음 안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승윤이가 벌써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1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윤이 많이 사랑해~!!

2017년 2월 22일

(주)SIMPAC 국내영업팀  
김주환 과장 아들 김우진 군



사랑스러운 우진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보를 통해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울메이트,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앞으로는 더 잘하는 남편이 되도록 할게~ 서로 사랑하며 우진이와 함께 백년해로합시다. 사랑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출생

(주)SIMPAC 경영지원팀  
권순영 과장 아들 권민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아~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어줘서 고마워.  
태어나 보니 형이 있어서 놀랬지? (웃음)  
동생 질투도 안 하고 너를 마냥 예뻐하는 든든한 형이야.  
앞으로 돈독한 우애를 나누며 사이좋은 형제로  
함께 자라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두 아들들!

